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869 - 886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채 규 만‡ 정 민 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남자 407명, 여자 692명, 전체 109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태도, 성행동, 성피해, 성개방태도, 자아존중감의 실태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혼전 성관계에 대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에 여자 30.7%, 남자 75.9%가 혼전 성경험이 있다고 했고, 여자가 혼전 성 경험한 사실에 대해 더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 동성애 감정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느끼는 현상을 보였다. 성피해는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적었고, 여성의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많은 수의 여성이 성피해 경험을 보고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성피해와 자아 존중감에 관한 상관관계는 성피해 경험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어린 시절의 성피해 경험이 자존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혼전 성경험도 많고 혼전 성경험에 대한 죄책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에 대해 더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의견이 논의에 제시 되었다.

주요어: 성의식, 성행동, 성피해,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200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채규만,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 920-7447, E-mail : kmchae@sungshin.ac.kr

성태도는 성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으로서, 그로 인해 드러나는 태도 및 행동과 성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하는데, 우리 사회는 1980년대부터 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 성에 대한 급격한 의식 변화가 있었다. 성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도덕성'에 근거한 태도로서 이것은 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결혼을 기반으로 한 성행위만을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즉 성을 부끄러운 것,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 둘째,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한 성태도로서 이 경우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애정이다. 즉 비록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서로 애정만 있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태도로서 성을 낭만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이것은 기존의 관습이나 태도보다도 개인의 자유의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도덕성을 가지며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반도덕성'에 근거한 성태도이다. 그 주된 신념으로 성행동이 자유롭게 허용될 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더 증대되고 긴장, 불안, 좌절이 줄어든다고 본다(안순덕, 1984). 이와 유사하지만 이유정(1989; 박선영, 2002에서 재인용)은 전통적인 성가치관과 개방적인 가치관 두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결혼을 기반으로 한 성행위만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방적인 성가치관으로서 개인의 자유의사를 강조하고 성충동이 자유롭게 허용될 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증대된다는 가치관이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개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김정규, 1998; 박선영, 2002; 이인숙, 1994; 이선경, 2000;; 이정연, 2001 장휘숙, 1995;정혜정, 2000; 허정화, 2000).

성을 의식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춘기적 발육과 제2차 성징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통례이지만, 출생, 사춘기, 결혼 그리고 부모가 되는 일생을 통하여 성의식은 일정한 발달과정을 밟게 된다. 그리고 성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발달과 사회경험적인 발달과의 상호작용, 즉 신체 생리적인 변화 등 개인의 성장발육 환경과 인간관계를 둘러싼 성문화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전영옥, 1983; 이정연, 2001에서 재인용). 우리 사회의 성의식의 변화는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혼전 성행동 경험의 비율, 성태도 변화의 양상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김정규, 1998; 이인숙, 1994; 이선경, 2000; 장휘숙, 1995; 박희성 등, 1995; 정혜정, 2000; 허정화, 2000).

혼전 성관계는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선택적으로 금지되어 왔기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혼전 성관계에 관해 1993년, 1994년, 1995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지만(김경희, 1994; 공미혜, 1993; 송정아, 1993; 성한기, 1996), 2001년에는 조사 대상의 대학생 3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30.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혼전 성관계에 대한 대학생의 입장이 이전의 연구보다는 더 개방적으로 됨을 알 수 있으며(이정연, 2001), 2002년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찬성 50.6%, 반대 27.9%의 입장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대학생의 혼전 성관계 태도가 많이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박선영, 2002). 이러한 사회 조사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혼전 성관계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남성들이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기에 특히 여성에게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의 성 경험과 관련해서 자위행위 경험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자위행위 경험은 1997년 연구에서 여자 14.2%, 남자 89.9%가 경험이 있다고 하여 남자의 자위행위 빈도가 더 높고 그 가운데 20%가 자위행위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문인옥, 1997), 2003년 연구에서는 남자가 자위행위의 빈도가 더 높고 죄책감은 여자들이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안현진, 2003). 즉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인 행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성피해란 가볍게는 성추행을 포함해서 심한 경우는 강간을 포함하는데, 성피해 실태를 보면 서구 성피해의 경우 여성 전체 인구의 7%-36%, 남성은 3%-29%정도가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inkelhor, 1984b).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피해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9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왔지만, 몇몇 연구들에서는 성피해 경험이 소녀에게서 소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5:3의 비율이었고(Baker & Duncan, 1985; Keckley Market Research, 1983),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는 2-4:1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Bagley & Ramsey, 1986; Burnam, 1985; Finkelhor, 1984b; Kercher & Mcshane, 1984). Finkelhor(1988), Russell (1986), Wyatt(1985)의 연구들에서는 여성은 세 명 중에 한 명, 남성은 여섯 명에 한 명 정도로 성피해가 보고되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빈번한 발생과 높은 사회적인 관심으로 인해 성폭력의 실태 및 그 휴유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성폭력 실태와 후유증을 알아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피해 실태는 1990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2290명의 응답여성 중에 가벼운 성피해는 76.4%, 심한 성피해 23.7%, 성희롱 피해 48.6%, 성기노출피해 74.5%, 강간시도피해 14.1%, 강간피해 7.7%, 어린이 성피해 6.5%로 각각 보고했으며(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996년에 재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1,500명의 응답여성 중 강간 또는 강간시도피해가 1.4%, 심한 성피해가 37.2%로 보고됐다(한국형사정책연구소, 1996). 1999년의 연구에서는 전체의 37.9%, 남자의 26.2%, 여자의 47.0%가 성피해를 경험하여 남자보다는 여자의 성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임신영, 1999). 2000년도 연구에서 피해유형으로 보면 가벼운 추행 30.5%, 강간시도 14.4%, 강간피해 11.4%로 추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피해연령에서는 아동기 12.6%, 청소년기 38.4%, 성인기 48.6%로 성인기에 성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정혜정, 2000). 또 다른 2000년도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비피해자 72.8%, 가벼운 피해 6.2%, 심한 피해 4.6%, 강간시도 또는 강간 16.4%, 그리고 여자의 경우 비피해자 13.3%, 가벼운 피해 53.6%(음란전화 7.5%, 지하철 신체접촉 18.3%, 성기노출 19.9%, 강제포옹 및 키스 7.8%) 심한피해 18.8%, 강간시도 또는 강간 14.3%였고 피해 연령으로 보면 남자의 경우 16세 이하가 6..8%, 17-19

세 4.2%, 20세 이상이 8.2%, 여자의 경우 16세 이하 29.5%, 17-19세 19.9%, 20세 이상이 33.4%로 남녀 모두 성인기인 20세 이상에 성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김정규, 김중술; 200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피해가 아주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 준다.

성피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 성피해자 후유증이 다차원적으로 성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김정규, 1998; 이선경, 2000; 임신영, 1999; 정혜정, 2000; 허정화, 2000). 성피해 후유증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왜곡, 대인관계의 위축, 다차원적인 문제를 보여 주는데(채규만, 2004), 성피해자들의 치명적인 피해 중의 하나는 자신에 대한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관인데 자아 존중감은 정신 건강과 행복감에 아주 주요한 요인이다. 성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럽혀졌고 아무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이제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며, 항상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이 어린 시절에 친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은 남들과 다르고, 순결하지 못하며, 이런 문제들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더욱 자존감이 아주 약하다(현혜순, 1998).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은 젊은 시절에 강간을 당하면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되며 때로는 자청해서 윤락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자포자기적 사고에는 성피해를 당하면 자신은 회복할 수 없이 더러워졌다는 잘못된 순결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피해는 '성관계가 아닌 폭력범죄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채규만, 2004). 성피해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폭행 당한 것을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괴로워하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체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내적으로 공허감을 느끼며 산다. 그래서 종종 이를 알코올이나 약물로 해결하려 한다(Hunter, 1995).

성피해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성피해가 없는 사람보다 성피해자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김정규, 김중술; 2000), 더 심한 성피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정혜정, 2000). 성피해의 휴유증 중에서 심각한 다른 증상은 신체화된 반응이다. 즉 이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증상을 신체화해서 표현할 뿐만이 아니고, 거식증, 폭식증, 비만증, 신체적인 전환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채규만, 2004).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인간에게서 아주 중요한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급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일면 반영하는 부정적인 성행동인 성희롱, 성폭력도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성에 관련된 자위행위 등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남녀에게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성의학적인 면에서 볼 때 자신의 통제하에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충족하기에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성태도, 성개방도, 성피해의 정도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급변해 가는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기존 연구보다는 더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행동에 있어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성행동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개방도는 다양한 접근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성태도를 반영하고 유지하는 하는 보수적 태도와 남녀의 혼전 성관계를 허용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성에 대한 융통성있는 입장을 대변하는 성개방태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성에 대한 개방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유정, 1989; 박선영, 2002에서 재인용). 특히 성의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우에는 성피해의 휴유증이 더 심하고 자존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의식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더 혼전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다른 목적 중의 하나는 성태도와 성피해 실태, 성개방정도와, 인간의 행복감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성피해 실태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성피해를 경험하며 더 심한 성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피해자의 경우 비피해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더 심한 성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태도, 성행동, 성폭행의 피해, 성개방태도, 자아존중감의 빈도를 조사하고 성의식, 성행동, 성피해, 성에 대한 개방도, 자아존중감에서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11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성의식, 성태도 및 성활동 질문지

성신여대 부설 심리건강 연구소에서 제작한 성의식 및 성활동 질문지로 성의식 질문 35문항, 성폭력에 관한 15문항, 각각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의 특성(피해시기,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와의 관계, 대처방식 등)에 관한 문항을 추가 했다.

성개방도는 성활동 질문지에서 10문항(1, 2, 3, 4, 5, 7, 10, 13, 15, 17번문항)을 추출하여 4, 5, 10, 13번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지닌 집단과 보수적 태도를 지닌 집단으로 나누었다.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Scale)

본 연구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Rosenberg(1965: 심리척도 핸드북 I 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 심리척도 핸드북

I 에서 재인용)가 번안하였다. 이 검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척도로서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이지만 채점할 때 반대로 처리한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는 .79이고(이영자, 1996: 심리척도 핸드북 I 에서 재인용) 내적합치도는 시기 1에서는 .80이었고 시기 2에서는 .83이었다(이영호, 1993; 심리척도 핸드북 I 에서 재인용).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남자 407명(37%) 여자 692명(63%)로 총 1099명(100%)의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0.0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카이검증, Fisher의 정밀검증, 이변량상관계수 통계처리기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대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대학생의 성태도를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가 유의미하게 여자보다는 더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를 해도 좋다고 나타났다(χ^2 = 96.648, p<.0001). 배우자의 혼전 타인과의 성경험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가졌고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더 관대했다(χ^2 = 14.008, p<.01). 포르노 비디오에 대해서는 남여 모두 아직까지 포르노 비디오가 유해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포르노 비디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χ^2 = 143.622, p<.0001). 동성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태도로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여자의 경우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44.2%일 정도로 동성애에 태도에서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χ^2 = 63.337, p<.0001).

대학생의 성행동

대학생들의 성행동도 성태도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았다. "어릴 때 집에서 성에 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남녀 모두 집안에서는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없었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자유롭게 집안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했다(χ^2 = 31.587, p<.0001). 청소년기 자위행위경험은 빈도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있어 자위행위 경험 유무로 Fisher의 정밀검정을 하였다. 남자는 대다수가 자위행위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의 경우 대부분이 자위행위 경험이 없었고(χ^2 = 450.610, p<.0001), 자위행위 죄책감은 남자와 여자 모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심한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었다(χ^2 = 51.196, p<.0001).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혼전 성관계 경험에 대

해서는 남녀의 차이가 컸다. 여자의 경우 30.7%만 혼전 성경험이 있는 반면 남자는 75.9%가 혼전 성경험이 있었다(χ^2 = 240.697, p<.0001). 혼전 성경험 죄책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혼전 성경험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χ^2 = 23.250, p<.0001). 동성에 대해 성적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한 빈도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있어 동성에 대해 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의 유무로 Fisher의 정밀검정을 하였다. 남자는 동성감정 느낌 없음(88.6%), 동성감정 느낌 있음(11.4%)인 반면 여자의 경우 동성감정 느낌 없음(82.6%), 동성감정 느낌 있음(17.4%)이라고 답변해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동성에 대한 성적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χ^2 = 6.959, p<.01).

대학생의 성피해

성피해 경험은 남자의 경우 피해경험이 적지만 여성의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많은 수의 여

표1. 대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남	여	전체	χ^2
사랑하면 혼전 성관계 좋다				96.648***
매우 그렇다	74(18.2%)	41(5.9%)	115(10.5%)	
그렇다	279(68.6%)	390(56.4%)	669(60.9%)	
그렇지 않다	46(11.3%)	215(31.1%)	261(23.7%)	
전혀 안 그렇다	8(2.0%)	46(6.6%)	54(4.9%)	
전체	407(100%)	692(100%)	1099(100%)	
배우자가 혼전 성경험 상관없다				14.008**
매우 그렇다	31(7.6%)	39(5.6%)	70(6.4%)	
그렇다	268(66.0%)	395(57.2%)	663(60.4%)	
그렇지 않다	89(21.9%)	211(30.5%)	300(27.3%)	
전혀 안 그렇다	18(4.4%)	46(6.7%)	64(5.8%)	
전체	406(100%)	691(100%)	1097(100%)	
포르노 비디오에 대한 생각				143.622***
매우 해롭다	18(4.4%)	157(22.7%)	175(15.9%)	
조금 해롭다	239(58.7%)	460(66.6%)	699(63.7%)	
조금 유익하다	137(33.7%)	71(10.3%)	208(18.9%)	
매우 유익하다	13(3.2%)	3(0.4%)	16(1.5%)	
전체	407(100%)	691(100%)	1098(100%)	
동성애에 대한 생각				63.337***
매우 이상하다	160(39.3%)	131(18.9%)	291(26.5%)	
조금 이상하다	133(32.7%)	237(34.2%)	370(33.7%)	
인정해 주어야한다	109(26.8%)	306(44.2%)	415(37.8%)	
자연스런 행동이다	5(1.2%)	18(2.6%)	23(2.1%)	
전체	407(100%)	692(100%)	1099(100%)	

주. ** p<.01, *** p<.001

표2. 대학생의 성행동

	남	여	전체	X^2
어릴 때 집에서 성에 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가?				31.587***
매우 그렇다	6(1.5%)	15(2.2%)	21(1.9%)	
그렇다	36(8.9%)	138(20.0%)	174(15.9%)	
그렇지 않다	248(61.1%)	406(58.9%)	654(59.7%)	
전혀 안 그렇다	116(28.6%)	130(18.9%)	246(22.5%)	
전체	406(100%)	689(100%)	1095(100%)	
청소년기 자위행위경험				610.151***
거의 없었다	16(4.0%)	458(70.9%)	474(45.1%)	
한두번 있었다	30(7.4%)	97(15.0%)	127(12.1%)	
가끔씩 했다	175(43.2%)	78(12.1%)	253(24.1%)	
자주했다	173(42.7%)	13(2.0%)	186(17.7%)	
거의 매일 했다	11(2.7%)	0(0%)	11(1.0%)	
전체	405(100%)	646(100%)	1051(100%)	
청소년기 자위행위경험(Fisher 검정)				450.610***
자위경험무	16(4.0%)	458(70.9%)	474(45.1%)	
자위경험유	389(96.0%)	188(29.1%)	577(54.9%)	
전체	405(100%)	646(100%)	1051(100%)	
자위행위를 한 뒤에 죄책감				51.196***
아주 많이 느꼈다	10(2.5%)	37(9.2%)	47(5.8%)	
많이 느꼈다	29(7.2%)	61(15.1%)	90(11.1%)	
조금 느꼈다	159(39.3%)	122(30.2%)	281(34.7%)	
별로 안 느꼈다	157(38.8%)	102(25.2%)	259(32.0%)	
전혀 안 느꼈다	50(12.3%)	82(20.3%)	132(16.3%)	
전체	405(100%)	404(100%)	809(100%)	
혼전 성관계 경험				240.697***
없음	97(24.1%)	471(69.3%)	568(52.5%)	
한명과 한두번	58(14.4%)	52(7.6%)	110(10.2%)	
한명과 여러번	98(24.4%)	107(15.7%)	205(18.9%)	
서로 다른 사람과 여러번	149(37.1%)	50(7.4%)	199(18.4%)	
전체	402(100%)	680(100%)	1082(100%)	
혼전 성경험 죄책감				23.250***
전혀 안 느낀다	72(22.9%)	53(23.2%)	125(23.1%)	
별로 안 느낀다	144(45.9%)	79(34.6%)	223(41.1%)	
조금 느낀다	87(27.7%)	66(28.9%)	153(28.2%)	
많이 느낀다	10(3.2%)	18(7.9%)	28(5.2%)	
아주 많이 느낀다	1(0.3%)	12(5.3%)	13(2.4%)	
전체	314(100%)	228(100%)	542(100%)	

동성에 대해 성적감정				7.809
전혀 없었다	356(88.6%)	555(82.6%)	911(84.8%)	
한두번 있었다	37(9.2%)	97(14.4%)	134(12.5%)	
가끔씩 있었다	6(1.5%)	15(2.2%)	21(2.0%)	
자주 있었다	2(0.5%)	2(0.3%)	4(0.4%)	
아주 많았다	1(0.2%)	3(0.4%)	4(0.4%)	
전체	402(100%)	672(100%)	1074(100%)	
동성에 대해 성적감정(Fisher 검정)				6.959**
동성에 감정느낌 없다	356(88.6%)	555(82.6%)	911(84.8%)	
동성에 감정느낌 있다	46(11.4%)	117(17.4%)	163(15.2%)	
전체	402(37.4%)	672(100%)	1074(100%)	
실제 동성애 경험				1.605
전혀 없었다	383(96.2%)	646(96.6%)	1029(96.4%)	
가벼운 키스나 애무 한두번	10(2.5%)	15(2.2%)	25(2.3%)	
깊은 동성애 경험 한두번	4(1.0%)	5(0.7%)	9(0.8%)	
깊은 동성애 경험 여러번	0(0%)	2(0.3%)	2(0.2%)	
깊은 동성애 경험 아주 많이	1(0.3%)	1(0.1%)	2(0.2%)	
전체	398(100%)	669(100%)	1067(100%)	

주. ** $p<.01$, *** $p<.001$

성이 성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여성이 성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χ^2 = 341.685, $p<.0001$). 성피해 경험시기에서는 남자는 아동기(46.2%), 청소년기(20.5%), 성인기(33.3%)이며 여자는 아동기(49.6%), 청소년기(30.5%), 성인기(19.9%)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χ^2 = 4.334, p>.05). 성피해의 정도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피해 정도가 심각했으며 여자의 1/10이 강간에 노출되었다(χ^2 = 367.189, $p<.0001$).

대학생의 성개방태도

성개방 태도에 있어서는 남자가 보수적태도(42.7%), 개방적태도(57.3%)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보수적태도(61.9%), 개방적태도(38.1%)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자들의 절반이상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반면 여자들은 절반이상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29.926, $p<.0001$). 이런 결과는 아직도 여성들이 성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수준은 남자의 경우 낮은 자존감(41.3%), 높은 자존감(58.7%)의 각각 수준과 여자의 낮은 자존감(49%), 높은 자존감(51%)을 고려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χ^2 = 6.132, $p<.05$). 이런 결과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남자들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결과들과 일치한다.

성피해, 성에 관한 태도 및 후유증

포르노비디오에 대해서는 성피해 경험과 부적 상관을 보여 포르노비디오를 성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성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포르노비디오를 본 경험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181, p<.01). 성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포르노에 대해서 더 민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 사람과 성피해 정도는 부적상관을 보여(r=-.071, p<.05) 더 심한 성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위행위에 죄책감을 더 많이 느꼈다. 포르노비디오에 대해서는 심한 성피해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포르노비디오를 본 횟수도 더 적었다(r=-.225, p<.01).

성피해 경험과 혼전 성관계 경험과는 부적상관을 보여 성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혼전 성관

표3. 대학생의 성피해

	남	여	전체	χ^2
성피해 경험				341.685***
성피해 경험 없음	343(84.3%)	184(26.6%)	527(48.0%)	
성피해 경험 있음	64(15.7%)	508(73.4%)	572(52.0%)	
전체	407(100%)	692(100%)	1099(100%)	
성피해를 경험한 시기				4.334
아동기	18(46.2%)	207(49.6%)	225(49.3%)	
청소년기	8(20.5%)	127(30.5%)	135(29.6%)	
성인기	13(33.3%)	83(19.9%)	96(21.1%)	
전체	39(100%)	417(100%)	456(100%)	
성피해 정도				367.189***
비피해	345(85.6%)	182(26.5%)	527(48.4%)	
가벼운 피해	20(5.0%)	334(48.7%)	354(32.5%)	
심한 피해	14(3.5%)	98(14.3%)	112(10.3%)	
강간시도, 강간피해	24(6.0%)	72(10.5%)	96(8.8%)	
전체	403(100%)	686(100%)	1089(100%)	

주. *** p<.001

표4. 대학생의 성개방태도

	남	여	전체	χ^2
성개방태도				29.926***
보수적 태도	172(42.7%)	249(61.9%)	421(52.3%)	
개방적 태도	231(57.3%)	153(38.1%)	384(47.7%)	
전체	403(100%)	402(100%)	805(100%)	

주. *** p<.001

계경험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r=-.197, p<.01). 혼전 성경험 죄책감에 대해서는 정적상관을 보여 성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혼전 성경험에 대해 더 죄책감을 느꼈다(r=.099, p<.05).

성피해 정도와 혼전 성관계경험은 부적상관을 보여 심한 성피해를 입은 사람일수록 혼전 성관계경험은 적었으며(r=-.101, p<.01), 성피해 경험과 혼전 성관계 죄책감과는 정적상관으로 성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r=.099, p<.05). 또한, 성피해경험과 피해정도는 정적상관으로 성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더 심한 성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807, p<.01).

표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남	여	전체	χ^2
자아존중감 수준				6.132**
낮은 자아존중감	168(41.3%)	339(49.0%)	507(46.1%)	
높은 자아존중감	239(58.7%)	353(51.0%)	592(53.9%)	
전체	407(100%)	692(100%)	1099(100%)	

주. ** p<.01

표6. 성태도, 성행동, 성피해, 성개방태도,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성개방태도	성피해경험	성피해 경험시기	성피해정도	자아존중감
성피해 경험	-.078*				
성피해 경험시기	-.137*	-.045			
성피해 정도	-.054	.807**	.102*		
자아존중감	.096**	-.070*	-.144**	-.054	
어릴때 집에서 성에 관한 자유로이 질문	-.167**	-.087**	.101*	-.080**	-.100**
청소년기 자위행위 경험	.232**	-.372**	.033	-.303**	-.001
자위행위 죄책감	.407**	-.062	-.046	-.071*	.089*
포르노 비디오에 대한 생각	.215**	-.181**	.022	-.151**	.025
포르노 비디오 경험	.294**	-.286**	.017	-.225**	.043
사랑하면 혼전 성관계 좋다	-.425**	.052	-.013	.008	-.023
혼전 성관계경험	.265**	-.197**	.106*	-.101**	.034
혼전 성경험 죄책감	-.289**	.099*	.033	.101*	.006
배우자의 결혼전 성경험 상관없다	-.355**	-.012	-.006	-.038	.004
동성애에 대한 생각	.221**	.129**	.070	.137**	-.010
동성에 대해 감정 느낀적이 있는가	.077*	.163**	-.097*	.186**	-.049
실제 동성애 경험	-.002	.041	.038	.062*	-.066*

주. 어릴때 집에서 성에 관한 자유로이 질문, 자위행위 죄책감, 사랑하면 혼전 성관계 좋다, 배우자의 결혼전 성경험 상관없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 변인들은 성개방태도를 구성하는 하위변인으로 상관을 볼수 없었음.

* p<.05(양쪽), ** p<.01(양쪽)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피해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r=.129, p<.01), 동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 문항에서도 정적상관을 보여 실제적으로 동성에 대해 감정을 느낀 경험도 성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163, p<.01). 하지만 실제 동성애 경험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피해 정도와 정적상관을 보여 심한 성피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동성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r=.137, p<.01), 동성에 대해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해서도 정적상관으로 더 동성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r=.186, p<.01), 실제적인 동성애 경험도 정적상관으로 심한 성피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동성애 경험을 하고 있었다(r=.062, p<.05).

성피해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

기존 자아존중감과 성피해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성피해자들이 성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r=-.070, p<.05). 또한, 성피해 경험시기와 성피해 정도에서는 정적상관을 나타냄으로 아동기보다는 성인기에 성피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더 심한 성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102, p<.05). 성피해 경험시기와 어릴때 집에서 성에 관한 질문을 자유로이 하는 것과는 정적상관으로 더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동기보다는 성인기에 성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r=.101, p<.05). 성피해를 아동기보다는 성인기에 당한 사람일수록 혼전 성경험과는 정적상관을 보여 혼전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106, p<.05). 동성애에 대한 감정은 아동기보다는 성인기에 성피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부적상관을 보여(r=-.097, p<.05) 동성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성피해와 성태도,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에서(표6), 어릴때 집에서 성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것과 성피해 경험은 부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r=-.087, p<.01). 즉, 어릴때 성에 관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성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했다.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기 자위행위 경험이 적은 사람과 성피해 경험과 긍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자위행위를 한 뒤에 죄책감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가정이 더 많은 성피해를 경험한 것보다는 개방적인 태도 때문에 더 많이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개방태도, 성행동, 성피해,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대학생들의 성개방태도와 성피해 경험이 없을수록 더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r=-.078, p<.05). 성개방태도와 청소년기 자위행위 경험과는 정적상관으로(r=.232, p<.01)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청소년기에 자위경험이 많았으며 포르노비디오에 대한 경험도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294, p<.01), 혼전 성관계 경험과도 정적상관을 보여 주었고(r=.265, p<.01), 혼전 성경험을 하고도 죄책감을 덜 느꼈다(r=-.289, p<.01).

자아존중감과 여러 성태도, 성행동과의 상관을 보면, 어릴때 집에서 성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과는 부적상관으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아존중

감이 더 높았다(r=-.100, p<.01). 자위행위 죄책감과는 정적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089, p<.05). 실제 동성애 경험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실제적인 동성애 경험을 가진 것과 상관이 높았다(r=-.066, p<.05).

논의

성의 충족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금기시 하던 성이 이제는 개방적인 상태의 도를 넘어서 무절제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다. 성적인 욕구나 표현이 강한 시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개방적으로 변해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에 참가한 남자 대학생들의 87%, 여대생들의 65%가 서로 사랑을 하면 혼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응답하고,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도 남자 73.6%, 여자 62.8%가 상관없다는 응답을 하여 이전 보다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31.4% 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30.4%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1990년대 초반의 연구 결과보다는 아주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공미혜, 1993; 김경희, 1994; 성한기, 1995; 송정아, 1993). 실제 성경험에서도 남성의 75.9%와 여성의 41.7%가, 남녀 대학생 전체 평균 약 51%가 성경험을 가지 있다고 보고 했는데, 1997년의 성경험 연구에서 남자 30.5%, 여자 8.1%에서(문인옥, 1997), 2000년에는 남자 38.2%, 여자 10.9%로(이선희 등, 2000), 2002년에는 전체 남녀의 50.4%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박선영, 2002) 결과보다는 아주 높은 수치이다. 배우자의 혼전 성관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많은 수의 남성이 보고한 것은 성에 대한 양성 평등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혼전 성관계의 증가는 성병, 원하지 않는 임신, 성추행이나 성폭력, 실연에서 오는 상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이 한층 더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둘째, 성에 대한 관심은 남녀 모두에게 많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응답자의 남성 10.4%, 여성 20.2%만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성에 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런 결과는 특히 남성에 대한 가정의 성교육 부재라고 결론을 지어도 될 것 같다. 특히 남성들은 사춘기와 대학생 시기에 성적인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감안하면 어린 시절의 가정 성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시절에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은 성에 관한 피해를 더 많이 보고할 기회가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성에 관한 문제를 알아야 개입을 할 수 있기에 어린 시절 가정의 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이 성폭력 예방에도 아주 중요하다.

셋째, 자위행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약 96%, 여성은 30%가 자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결과도 여자 14.2%, 남자 89.9%가 경험이 있다고 하여 남자의 자위행위 빈도가 더 높고 그 가운데 20%가 자위행위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문인옥,

1997)한 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자위행위는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수음(手淫)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현대의 성의학에서는 자위행위는 정상적인 성행위이고 독신이 건강하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아직도 여성들은 자위행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자위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지는데 (안현진, 2002), 여성들에 대한 성교육에서 자위행위의 건강한 측면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논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남녀 96.5% 이상이 동성애 경험이 없지만, 동성간에 가벼운 키스를 경험한 사람이 2.5%, 깊은 동성애 경험을 한 사람이 약 1%라고 응답했다. 동성애 경험의 비율은 3%가 동성애라고 답변한 영국, 프랑스, 덴마크와(Laumann 등, 1994) 5-10%의 남성과 2-4%의 여성이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치(Sell 등, 1995)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 15.2%의 응답자(남성 11.4%; 여성 17.4%)가 동성애에 대한 감정을 경험한 일이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r=.129, p<.01) 응답한 것을 보면 동성애적인 감정을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억제하고 있지 않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성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동성애 감정을 더 느꼈다는 결과는 현재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가장 많다고 주장하는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Rathus 등, 2004) 우리나라는 정서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동성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할 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성폭력이 심각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여성의 73.7%가 경미한 성추행을 포함한 성피해를 경험했고, 성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절반가량이 어린 시절에 성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여대생들의 20%가 성인기에 성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 대학생활 중에 데이트나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캠퍼스에서 성피해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피해 연구 중 전체의 37.9%, 남자의 26.2%, 여자의 47.0%가 경험한 수치(임신영, 1999) 보다는 높고, 2000년도 연구에서 전체 피해유형으로 보면 가벼운 추행 30.5%, 강간시도 14.4%, 강간피해 11.4%로 추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피해연령에서는 아동기 12.6%, 청소년기 38.4%, 성인기 48.6%로 성인기에 성피해를 당한 연구(정혜정, 2000)와는 비슷한 결과이다. 대학교에서 성피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성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남성 성피해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응답자 중의 남성 17%인 64명이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한 성피해를 경험했는데 이들 중의 53%는 자신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흔히들 성피해는 여성만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남성들도 군대 내에서의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등 성폭력 피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남성은 자신의 성피해를 아주 심각하다고 지각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성격상 심각할 수도 있고, 남자가 성피해를 당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더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캠퍼스 내에서

남자 대학생들도 성피해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성피해 후유증은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하며, 어린 시절에 성피해를 당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다. 서구에서는 성피해를 당하면 자신의 인권이 짓밟혔다는 생각에 분노의 감정이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성피해자는 순결을 상실하고, 신체가 더러워졌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에 성피해 여성들은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이러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한다. 성피해 심각도와 성피해 시기에 관한 상관관계는 아동기보다는 성인기에 성피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더 심한 성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r=.102, p<.05).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성피해를 당할수록 그 심각도가 크다는 외국의 기존의 연구와 상이한 점을 시사하는데(채규만, 2004),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인이 되어서 성피해를 당한 사람은 성피해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을 자신에게 돌리고 성피해에 대한 인지왜곡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피해자의 대처방식은 서구 여성에 비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성피해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 일어난 것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을 경험했다. 특히 대학생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구했기에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이나 가치관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성에 관한 자신들의 행동 보고나 태도 등의 타당성에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행동을 알아보고 이들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경희 (1994). 여대생의 성의식, 결혼관, 배우자선택,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7집, 69-83.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편 (2000). 심리척도 핸드북 I, 서울: 학지사.

공미혜 (1993).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4집, 27-47. 부산여자대학교.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31-345.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69.

문인옥 (1997). 일부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2호. 95-112.

박선영 (2002).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 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송정아 (1993). 성문화에 관한 사회적 통념과 기독교 대학생의 성 인지도. 학생생활연구, 14-28. 고신대학교.

성한기 (1996).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태도와 행동. 논문집, 52권, 207-229.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이선경 (2000).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안순덕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임신영 (1999). 성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녀 성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선희, 한성현, 조희숙, 이명선, 채유미, 유승현 (2000).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관련 요인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17권, 2호. 1-15.

이인숙 (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연 (200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간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안현진 (2003). 미혼남져의 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20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 (1995).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연구. 전환기에 선 한국인의 가치관. 155-213.

정혜정 (2000). 성피해의 실태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일반집단과 정신과 환자집단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규만 (2004). 성피해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현 연구Ⅱ.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정화 (2000). 남성 성피해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혜순 (1998).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gley, C. & Ramsey, R. (1986). Sexual abuse in Childhood: Psychosocial outcome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s. *Social Work and Human Sexuality, 4,* 33-47.

Baker, A. W., & Duncan, S. P. (1985). Child sexual abuse: A study of Prevalence in Great Britain. *Child Abuse and Neglect, 9,* 457-467.

Burnam, A. (1985). Personal communication to D. Finkelhor, *Concerning the Los Angles Epidemiological Catchmant Area Study.*

Finkelhor, D. (1984b). Boys as Victims: review of the evidence. In D. Finkelhor (ED),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Finkelhor, D. (1988). *Lasting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Newbury Park, CA: Sage.

Hunter, M.(1995). *Adult survivors of sexual abuse.* CA, sage.

Keckley Market Research (1983). *Sexual abuse in Nashville: a report on incidence and longterm effects. Nashville*, TN: Keckley Market Research.

Kercher, G. & McShane, M. (1984). The prevalence of child sexual abuse: victimization in an adult sample of Texas residents. *Child Abuse and Neglect, 8,* 495-502.

Laumann, E. O., Gagnon, J. K., Michael, R. T., & Michaels, S. (1994).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Sexu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thus, A, S., Nevid, J., S., & Fichiner-Rathus, L. (2004) *Human Sexuality: in a World of Diversity.* Pearson.

Russel, D. (1986). *The secret trauma: Incest in the Lives of girls and woman.* Nem York: Basic Books.

Sell, R. L., Wells, J. & Wypij, D. (1995). The Prevalence of homosexual behavior and

attra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Results of National, population-based sampl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4,* 235-248.

Wyatt. G. E. (1985). The sexual abuse of Afro-American and white american woman in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9,* 507-519.

원고 접수: 2004년 10월 22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12월 4일
게재 결정: 2004년 12월 11일

KCI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869 - 886

A Study about the sexual attitudes and victimization of Korea college students.

Paul Chae Min-Chul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regarding th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effect of sexual abuses and self-esteem was conducted by using 407 male and 692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recruited from 11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 sexual attitudes and activities scales, and the self-esteem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more permissive about the attitude for premarital sex than the previous subjects. For example, about thirty one percent of female students and seventy six percent of male students admitted that they had premarital sexual experiences. However, more female students felt guilty about their sexual intercourse than male students. While they were negative attitudes for homosexuality, women showed more lenient attitudes homosexuality than men, and also more female students tend to accept homo sexuals than men. As expected, more female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sexual abuses including rape, and sexual harrassment than male counter parts.

There wa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ow self-esteem and sexual abuse experiences. More specifically, the earlier women experienced sexual assault, the more negative side effect they experienced. Over all, the subjects who have permissive attitudes about sex, tend to have more sexual experiences, and felt less guilty and more homosexual feelings than the conservative ones. More discussions about the current college students and further research ideas were suggested.

Keywords: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sexual abuses, self-esteem